

광주도시공·전남개발공 3년내 6295억 갚아야

전국 23개 지방공기업 작년 채권발행 10조

5년내 만기도록 채권액 20조8300억 달해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2015년까지 3년 이내에 갚아야 할 공사채가 각각 광주 2585억원, 전남 37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공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 규모는 총 10조1801억으로 전년(5조5506억원) 대비 83.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돼 지난 15일 현재까지 벌써 2조2000억여원에 달했다.

광주시도시공사가 올해 갚아야 할 공사채는 700억원으로 도시공사채 예상 500억원과 20억원의 상환채를 발행해 오는 30일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며, 2014년에 585억, 2015년엔 13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앞으로 분양수의 등 자체 예산을 절감해 공사채 상환에 나서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상환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시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모두 1600억원으로 ▲광역 위생매립장 200억원 ▲평동산단 500억원 ▲혁신도시 900억원 등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올해 갚아야 할 공사채는 449억원이며, 2014년과 2015년 만기도록 하는 공사채는 각각 1648억원과 1613억원이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택지·산단 개발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해 각각 ▲남악신도시 362억원 ▲혁신도시 1700억원 ▲장흥산단 1000억원 ▲여수경도 1985억원 ▲오동재 250억원 ▲강진산단 150억원 ▲F1 경주장 300억원 등 5747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3년 내 만기도록 공사채가 2000~3000억원대에 달하지만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광주개발공사는 248%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사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은 차관(신규 채권 발행으로 기발행된 공사채를 상환)을 위한 경우가 많았다.

2012년 지방공사채 발행규모가

장 찰던 지방 공기업은 서울시의 SH 공사로 3조9986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시공사(1조8692억원), 인천도시공사(1조1777억원), 부산도시공사(1조 1607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내 지방 공기업이 올해에 갚아야 할 액수는 6조4724억원에 달한다. 공사체들의 연도별 만기도록 액수를 보면 내년에는 8조4306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나고, 2015년에는 4조5034억원, 2016년 1조1365억원, 2017년은 2930억원이다. 향후 5년간 상환해야 할 채권의 액수는 20조8361억원에 달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12곳 지역위원장 선출

서구을 서대석·임우진 압축

민주통합당은 18일 순천·곡성과 광주 서구을, 광주 동구 등 3곳의 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인 순천·곡성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목포시 등 전남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모두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의원 선거인단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효득표 과반수를 획득했다.

선출된 지역위원장은 ▲목포시 박지원 의원 ▲여수 갑 김성곤 의원 ▲

여수 을 주승용 의원 ▲나주·화순 배기운 의원 ▲광양·구례 우윤근 의원 ▲당양·함평·영광·장성군 이낙연 의원 ▲고흥·보성군 김승남 의원 ▲장흥·강진·영암군 황주홍 의원 ▲해남·완도·진도군 김영록 의원 ▲무안·신안군 이윤석 의원이다.

3명의 후보가 등록한 순천·곡성군은 경선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 서구 갑과 북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서구 갑 위원장에 박혜자 의원을 ▲북구을 위원장에 임내현 의원을 선출했다.

광주시당은 앞서 16일 남구는 장병완 의원, 북구 갑 강기정 의원, 광산

갑 김동철 의원, 광산 을은 이용석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역위원장들은 20일 예정된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지구당인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5명에 대한 면접 결과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임우진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등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오는 23일 서구문화센터에서 경선을 개최하기로 했다.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거인단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당원 중 월 3회 이상 당비를 납입한 당원으로 총 974명으로 집계됐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등 불법 개입”

진선미 의원, 문건 공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진 의원은 문건에서 원 원장이 ▲대선 등 주요 국내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 합

법 노조를 ‘종북 좌파’로 규정, 적극적인 대응을 시지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흥보하고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 국정원법(제9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원세훈 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 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

면서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 직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문제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 갱침 및 종부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협의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면서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 직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문제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천안함 폭침, 4대

강 사업 등 국가 주요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 갱침 및 종부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협의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5월 개원

운영비 문제로 개원이 지연됐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이르면 오는 5월께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대 병원에 의료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애초 계획대로 제2요양병원 운영을 전남대 병원에 맡길 방침이다.

시는 전남대병원측이 요구한 운영비 보전을 대신해 2002년 제1요양병원 개원 당시 의료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지원한 선례에 따라 제2요양병원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남대병원측이 요구한 운영비 보전을 대신해 2002년 제1요양병원 개원 당시 의료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지원한 선례에 따라 제2요양병원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등 개원준비를 거쳐 오는 5~6월께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제2요양병원의 수익성이 낮다고 예상하고 운영비 17억 원을 빌려줄 것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 줄 것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 지난 1월 개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옆에 있는 제2요양병원은 181개 병상을 갖춘 치매전문 병원으로, 총 공사비 13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금희 파실분

부동산을 금희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상가건물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영천공인중개사 010-3215-9969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담당” 무인텔

객실 : 32개

현 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양어장(노지)

염전

잡종지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아파트 일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저하철 운전역 인근 광장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신동 학동마을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 9만원

★ 서구 세화동 2차선 도로집

주거지역 약 12,522㎡(763평)

매매가 평당 15만원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넓이 2,988㎡(904평)

매매가 평당 60만원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운동77번 시내버스정

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음) 전 2,

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

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당 흰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금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

월세 794만 원